2007학년도 수시2학기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 오후

【문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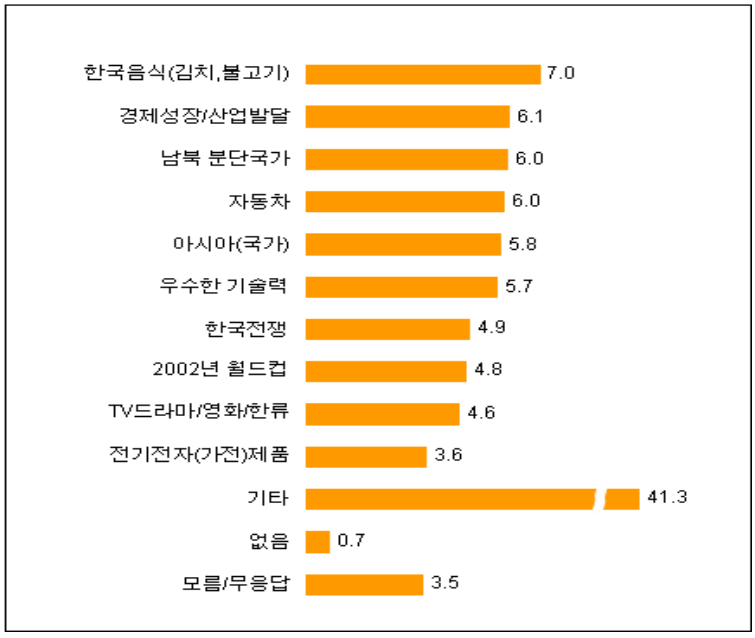
아래에 제시한 자료와 도표를 참고하여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이미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가> 주요 지표의 우리나라 순위

지표	순위(비교국가수)
국가 브랜드 순위	**20(25)**
국내총생산(GDP)	12(94)
수출액	12(99)
수입액	13(94)
외환보유액	4(78)
경제성장률	7(30)
인간개발지수	28(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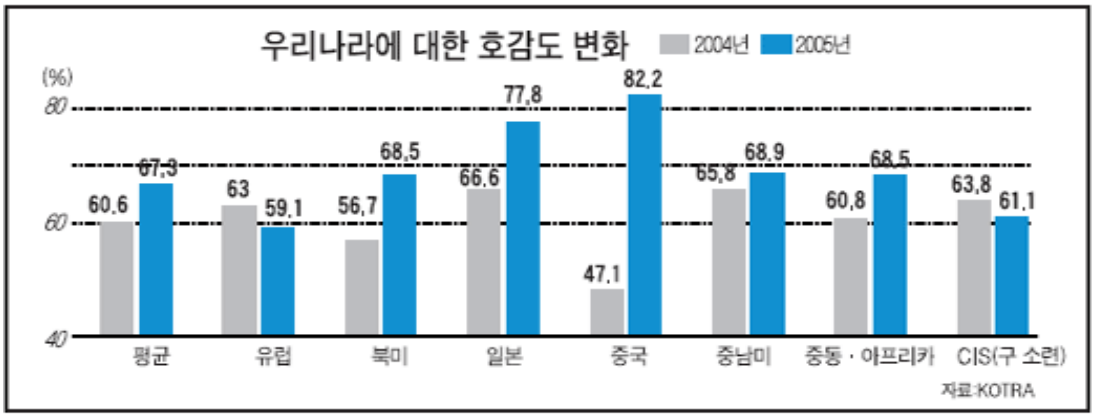
<나> 한국하면 최초로 연상되는 것들*

(단위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05년 세계 70개국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문항 2】

제시문 ㉮와 ㉯를 읽고 문화영역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제시문 ㉮>

과거에 사람들은 종교, 예술, 철학, 과학, 정치학 등의 고차원적인 인간 정신 활동의 표현을 '문화'라고 생각하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문화민족'(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원시민족'(미개한 문명)을 구별하는 가운데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문화를 보는 이러한 관점은 상당히 오래 전에 포기되고 이제 각 사람과 각 민족의 삶의 표현을 문화로 보게 되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연 속에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연을 바꾸고 있다. 땅을 갈든, 우주 실험실을 만들든, 손을 씻든, 혹은 철학 체계를 구상하든 간에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고, 이것이 다름 아니라 곧 문화이다. 그러므로 '미개인'(자연 상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과 성애(性愛)에 관한 의식(儀式)과 체험, 식량 생산 방식과 식탁 예법, 농경과 사냥, 그릇, 도구, 의복의 제작, 주택 장식과 화장(化粧) 등 인간의 여러 활동이 문화에 속한다. 예술, 종교,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이 모두 문화이다. 농경과 (땅과 여인의) 비옥성, 성애, 예술적 표현과 종교적 신화는 이른바 '미개인'에게서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엉켜 있다.

– C. A.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에서 발췌 –

<제시문 ㉮>

우리 시대는 '덜 고상한' 문화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주방일과 집수리, 정원 가꾸기 등이다. 다만 이런 일들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래의 매력과 독특한 면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그 매력과 독특한 면이란, 그 일들이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본래의 장점을 깡그리 잊어버리고는 은밀한 음모를 계획했다. 사회적 무대 앞에 이 일들을 완전히 드러내 놓고서 유심히 살피고 연구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박식한 담론들이나 해석을 곁들인 수많은 논쟁들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그런 담론과 논쟁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본래 누구나 손쉽게 사용해 오던 맛깔스러운 언어들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분석용 전문 용어들이다. 한 끼 식사의 요리에 딸려 나오는 주석들은, 마치 책 한 권을 분석해 놓은 것처럼 분량도 길 뿐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중략) '모든 것을 문화화'한다는 열린 개념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화를 옳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 문화를 너무 높이다가 결국 '고상한' 문화로 끌어내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 피에르 쌍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발췌 –